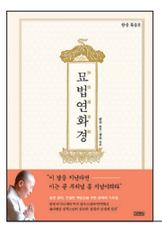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8~12/1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6	알기쉬운 우리말 화엄경 독송	무비 스님	우리출판사
2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 스님	불교신문사	7	도해 화엄경	쟈써	부다가야
3	프리스틴 마인드	올갠 초왕 린포체	운주사	8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4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법륜 스님	정토	9	선불교의 뿌리	김성철	오타쿠
5	근본불교	이중표	불광	10	제로:현실을창조하는마음상태	천시아	젠북

책세상

"묘법연화경…고통서 벗어나는 실용 해법 제시"



묘법연화경
광우 옮김/정목 정리
김영사 펴냄/2만6천원

한국 비구니계 역사 광우 스님이 번역하고
유나방송 정목스님이 정리한 독송용 법화경
모든종파 수행갈등없이 아우른 '통합' 경전
고통받는 중생 위한 명쾌한 진단과 처방전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정리한 **정목 스님**은?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위로와 용기, 지혜를 전하는 우리 시대의 멘토이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BBS 불교방송과 BTN 불교TV서 음악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한국방송대상 사회자상과 전국프로듀서연합회 진행자상을 수상했다. 마음공부 전문매체 '정목스님의 유나방송'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며, 1997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아픈 어린이 돕기 운동 '작은사랑'을 펼치고 있다. 2009년부터 정각사 주지로 있다.

▲옮김이 **광우 스님**은?

한국 비구니계 선구자이자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다. 1939년 출가해 1960년 서울 청룡사서 보살계와 비구니계를 받았다. 1958년 정각사를 창건했고, 부산 소림사서 10년 넘게 법화산림을 열었다. 1995년부터 8년간 전국비구니회장을 지냈고, 2007년 조계종단 최초로 명사 법계를 받았다. 정각사에 주석하다 2019년 입적했다. "떠나는 바람은 집착하지 않는다. 그저 왔다 갈 뿐이다"라는 임종게를 남겼다.

〈금강경〉〈화엄경〉과 함께 주요 대승경전으로 꼽히는 '경 중의 경'. 초행자의 막막한 마음, 수행자의 오랜 고민에 응답하는 궁극의 가르침 〈묘법연화경〉. 여러 번역본 중에서도 운율이 잘 맞고 뜻이 명료하여 널리 사랑받아온 태허(太虛) 광우 스님의 번역본을 제자인 정목스님이 정리했다. 다양한 불교 이론을 아우른 '통합' 경전이자 대승정신 구현한 '상생'의 경전. 참된 공덕, 진실한 깨달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하는 지침서이다.

정목 스님은 이번 재출간에 부쳐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인연과 공덕은 부처의 세계에 입성할 초대권을 받는 것과 같다"고 밝힌다.

부처가 "가장 깊은 것이어서 맨 끝으로 설한다"고 밝힌 이 경은 일불승(一佛乘)·본래성불(本來成佛)과 같은 핵심 교리에 집중하여, 세부적 방법 차이로 분열된 각 종파의 수행을 조화롭게 종합한다. 예로, 수행의 결실을 회향하고 모든 이가 해탈할 때까지 열반을 미루는 〈법화경〉 속 보살은 초기불교 수행의 최고 단계 '아라한'과 대승불교 이상형 '보살'의 모습을 함께 갖춘다.

〈법화경〉은 오늘날 우리가 되새길 평등과 상생의 가치도 전한다. 전통적으로 성불할 수 없다 여겨진 여성의 성불 장면을 담은 이 경은 "남자다 여자다 분별하지 말며" "점점 닦고 배우면 다 마땅히 부처를 이룰 것"이라고 설한다. 이처럼 세간의 분별을 떠나, 불성을 지닌 인간을 향한 신뢰를 베푸는 부처는 모든 중생을 멸도로 이끈다. 각 중생의 능력에 맞춘 비유와 해설을 방편으로 설하여 낙오하는 이가 없게 한다.

"최후의 진실한 가르침(감산대사)"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신 참뜻을 가장 잘 나타낸 경전(지의대사)"이라 칭송받은 이 경전은 문학적 가치 또한 높이 평가받는다. 절묘한 비유와 풍부한 예화로 진리를 풀이한 이 경에 대해, 무협작가 김용은 "위대한 문학"이라 평했다. 이처럼 〈법화경〉은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생명력이 깃든 찬불(讚佛) 문학으로 널리 일컬어진다.

〈법화경〉의 주제는, 모든 수행의 궁극적 목표가 성불의 가르침을 깨치는 데에 있다는 '회삼귀일(會三歸一)', 즉 일체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본래성불'이다. 다른 수행법을 폄하해온 종파불교의 한계를 넘어 핵심에 집중하여, 성문승·연각승·보살승을 저마다의 정당성을 지닌 중생 구제 방식으로 인정한 기념비적 경전이다.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 또한 특출하다. '불타는 집에서 세 아들을 구해낸 아버지 이야기' '보배구슬을 지닌 줄 모른 채 세간을 떠돌며 고생한 자의 이야기' 등 비유와 예화를 통해 경을 읽는 모든 중생이 그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설득한다. 이 과정에서 '불자(佛子)' '화택(火宅)'과 같이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불교의 주요 용어가 처음 소개된다.

부처님은 자식과 같이 여기는 중생들에게 "변변치 않은 빛깔·소리·냄새·맛·감촉을 탐하여" 화택에 있기를 그만두라고 설하며, 〈법화경〉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경을 읽고 베껴 쓰는 데 정진해, 감각기관을 깨끗이 하고 화택서 벗어나 불성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이처럼 〈법화경〉은 고통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용적 해법을 제공한다. 나아가 고통의 근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화택에 즐겨 있는지를 설하며, 고통에 얽힌 중생의 상황을 진단하고 근본 처방을 제시한다. 또한 이 경전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불성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성불에 이르는 방법에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가'와 같이 초행자의 막막한 마음을 대변하는 질문부터, '부처는 어디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무얼 하시는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보살은 무얼 할 수 있을까'와 같이 수행자의 오랜 고민이 담긴 질문에까지 응답한다. 문답의 과정을 따라온 독자는 '진정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궁극적 질문과 맞대면하고, 이로써 진리의 초입에 성큼 들어서게 된다.

앞서 걸으며 수행의 길을 닦은 광우스님의 정확한 해석과 정목스님의 친절한 안내를 도반 삼아 정진한다면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듯" "횃불이 어둠을 몰아내는 듯" 생사의 속박에서 풀려나 헤아릴 수 없이 큰 기쁨과 가피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 속의 밑줄 긋기

"그대들은 삼계화택에 있기를 즐기지 말지니, 변변치 않은 빛깔·소리·냄새·맛·감촉을 탐하지 말라. 만일 탐내어 애착하면 곧 불에 타는 바가 되느니라. 그대들이 이 삼계에서 빨리 나오면 마땅히 삼승인, 성문승·벽지불승·불승을 얻으리라. 내가 지금 그대들을 위하여 이 일을 책임지고 보증하노니, 결코 허망하지 아니하리니, 그대들은 다만 부지런히 닦아 정진하라. 여래는 이와 같은 방편으로 중생을 권유하여 바른길로 나아가게 하노라."
〈비유품〉중에서

"세존이시여, 큰 재산을 가진 장자는 곧 여래이시고 저희는 부처님 아들과 같사옵니다. 여래께서는 항상 저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삼고(三苦)에 얽힌 까닭에 생사고해에서 여러 가지 뜨거운 고통을 받으며 미혹하고 아는 바가 없어 소승법만을 즐겨 집착하였나이다. 오늘 세존께서 저희로 하여금 모든 법의 희론(戱論)의 분뇨를 없앨 것을 생각하게 하셨나이다. 저희는 그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멸도에 이르는 하루 품삯을 얻었나이다." 〈신해품〉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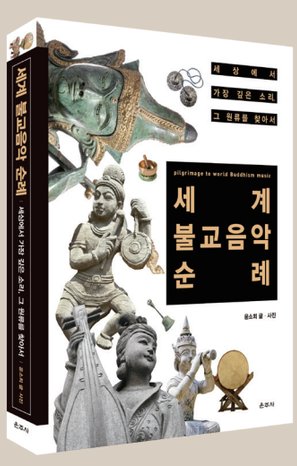
"이와 같이 가섭이여, 부처님의 설법은 비유컨대 큰 구름이 한 맛의 비로 사람의 꽃 적셔서 열매 맺음과 같느니라. 가섭이여, 마땅히 알라. 이러한 인연과 갖가지 비유로 불도를 열어 보이나니 이것이 나의 방편이요, 모든 부처님 또한 그러하시니라. 내가 이제 그대들 위해 최후 진실을 말하노니 모든 성문들은 다 멸도한 것이 아니요, 그대들이 행할 바, 그것이 보살도이니 점점 닦고 배우면 다 마땅히 부처 이루리라." 〈약초유품〉중에서

"전도된 생각으로 모든 법이 있다·없다, 실상이다·실상 아니다, 난다·나지 않는다고 분별하나니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그 마음 닦아 거두어 편안히 머물러 동하지 않기를 수미산같이 하라. 일체의 법을 관하되 다 있는 바가 없음이라." 〈안락행품〉중에서

불교음악 범패의 원류를 찾아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찾아 기록한 20년 여정의 대기록!

세계 불교음악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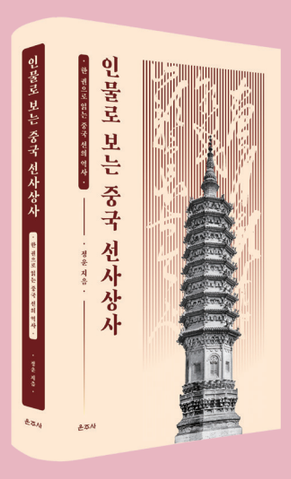


왜 불교음악은 나라마다 다른가? 각국의 불교음악은 어떻게 변용되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세계 불교음악의 현장을 생생한 기록과 풍부한 사진으로 보여준다.



윤소희 지음/사륙배판/440쪽
값 28,000원

인물로 보는 중국 선사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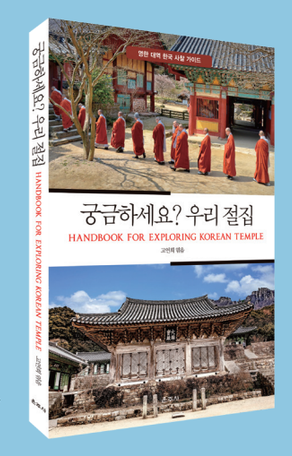


한 권으로 읽는 중국 선의 역사!

중국 선종사의 주요 선사들의 삶과 사상 등을 살펴보면서 중국 선의 방대한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망한 역작! 풍부한 사진과 꼼꼼한 법계도가 이해를 돕는다.

정운 지음/신국판/양장/616쪽/값 30,000원

때론 영어로 보면 더 쉬운 불교공부



궁금하세요? 우리 절집
HANDBOOK FOR EXPLORING KOREAN TEMPLE

익숙하지만 막상 정확하게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우리 절집! 외국인과의 대화 형식으로 절집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영한 대역 불교입문서!

고연희 엮음/신국판 변형/244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